

시론



박영철 목사
참빛교회

최근 미디어에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분리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접했다. 분리부부는 배우자 간에 생활방식이 다른 것으로 다툼을 만들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따로 거주하면서 각자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마다 남편과 아내로서, 아이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디지털 세대의 등장으로 연결점이 멀게만 느껴진 영역에서도 ‘융합’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 근래 인문학이 유행하면서 모 출판사에서는 ‘데밀꽃 필 무렵과 다윈과 십자군’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다. 이렇듯 현 시대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네트워크의 확장을 이루면서 새로운 가치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분리부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정도 과연 ‘확장과 발전’의 의미로

가정, 그 작은 꽃별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동성애를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합법적 부부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하는가 하면, 공교육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남-남, 여-여의 가정에 대해 가르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역시도 확장과 발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문화와 예술 속에서 비성경적인 가정 모델들이 제시되고 미화된다. 세상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가정의 위기다. 현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가정을 작게 여긴다는 점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불안한 결혼생활보다는 안정적인 싱글라이프를 더 선호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가정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계는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분명히 오늘날 가정은 쇠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첫 모델로부터 인류는 점점 벗어나고 있다. 가정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이고, 인류의 위기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더불어 가정에 성경적 가치관을 불어 넣으려는 건강한 긴박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의 사역들이 가정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본질 사역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뜨거운 여름이 점점 다가온다. 여름이 되면 수분이 참 중요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

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의 71%는 풀벌을 매개로 수정을 할 뿐만 아니라, 풀벌에 의해 수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전 세계적으로 풀벌의 수분 가치가 최소 2650억 유로(약 3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아인슈타인은 “지구상에서 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에 지구가 멸망한다”고도 말했다. 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의 양과 종류가 그만큼 줄어들고 인류가 식량 부족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풀벌이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이 세대를 살릴 풀벌과 같다. 거대한 세상에 비해 우리의 가정은 작게 여겨지지만, 가정에 위기가 생기면 모든 인류가 위협에 빠진다. 교회와 더불어 영적인 공경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 아닌가! 예멘동산에 사단(뱀)은 가정을 먼저 공격했다. 여전히 사단은 가정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가정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도록 공격하고 있다. 가정을 살려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특히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 교회에 여러 사역이 있고, 일장들이 있을지라도 가정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는 부흥하고 사회도 회복될 것이다.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거룩한 가정의 비전을 심어야 한다. 교회여! 가정, 그 작은 풀벌을 힘써 지키자!

칼럼



최병두 목사
서광교회

18세기 미국독립혁명의 아버지 페트럴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로 통용된다. 구속이나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행동을 자유라고 하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관계들이 포함된다. 어디서든 규제는 존재하는데, 시대나 환경 혹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이다.

육신에 속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한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넘치는 자유를 누리는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지, 지난 가운데

이웃을 어떻게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그들은 육신이 얻은 것으로 자기 가치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일시적인 자유를 얻기는 한다. 하지만 이것은 유한적인 것이다. 성경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속해야 자유함을 누린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처럼 죄의 종이 되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죄의 종은 자유가 없다. 그래서 심령이 죄에 매여 근심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어두움에 갇혀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적 자유는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함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는 조건은 구속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속이 적용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그는 육체의 자유를 가지고 핍박자의 생활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전파자로서 영·육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다(롬 8:18, 35~39).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먼저는 영적분체인 하나님을 가까이(약 4:8)하여야 한다. 내 죄를 고백하여 사함을 받으면 나의 양심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자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다(요 1:9). 다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마 18:18). 즉 타인을 향한 증오를 버리게 되고(마 6:15), 자신의 욕구를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가게 된다. 더 나아가 원수를 선대하여(눅 6:35) 축복하고(눅 6:28) 사랑하며(마 5:44) 도와주는 품성(성)을 갖게 된다.

다음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야 한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자발적인 종의 자세로 자신이 낮아지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자유함은 마음에 평안을 충만케 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5:1절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께서 정해놓으신 규제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자.

社說

인일기백(人一己百)

‘남이 한번 하면 나는 백번 한다’는 뜻으로,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인 조익(趙翼)의 포저집(浦渚集) 권 28중 원조잡(元朝簞)에 나오는 말이다.

조익은 조선시대에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고 자유로운 학문 활동을 펼친 열린 생각을 지닌 학자였다. 어려서 다섯 살에 시를 짓고 여덟 살에 상소문을 올릴 정도로 영특한 천재성을 지녔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아 과거도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할아버지의 권고로 24세에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어느 날 문득 26세 때 늦은 나이에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배움은 뒷전이 되었다. 하여 훌쩍 가버린 시간을,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삶, 조조해진 조약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잠(歲)을 지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남이 한번 하면 나는 백번 하리’이다.

악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삶이 되자. 요즘도 많은 곳에서 이런저런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찾아보면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방법론에 치우친 경향들이 많이 있다. 목회자는 모를지기 조금은 미련해야 한다. 다른 이들이 넓은 길을 찾고 빠른 길을 찾을 때 좁은 길이고 구부러진 길이지만 거기서 ‘느림의 미학’을 배우고 우직함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의 값이 주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중용(中庸)에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라 했다. 남과 같이 해서 는 결코 남보다 앞설 수 없다. 남이 한번 할 때 나는 몇 배 이상의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남을 앞설 수 있음을 기억하자. 물론 신앙인의 모습과는 배치되는 것 같지만 <盡人事待天命>임을 안다면 결코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전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כל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심었고’ ‘물을 주었다’라는 말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더불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시편 126:4~6)는

종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들 중 중요한 일을 꼽으려면 당연히 <현장 개정안>일 것이다.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처럼 정년분체와 원로대 의원권 문제, 산하 모든 기관의 이사 임기의 단축안 등 많은 법규들을 개정하려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법에 대한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묵화선생(墨)과 같은 것이지만 결코 은혜와 사랑의 통로는 되지 못한다. 율법은 십자가로 소멸되고 오직 은혜와 사랑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동안 현장개정위원회를 승인하여 발족하고 수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공청회 때 보여준 성숙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더욱 더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여겨진다. 모쪼록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20년 7월 20일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신현파 사장 강병익 편집인 이강준 인쇄인 배성한
(주)성결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신로 1가길 11(창춘동 1-29 창희회관)
대표전화 02-732-1288 / 070-7132-0091~5 팩스 02-732-128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 신청 안내 02-732-1286 /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news@sknews.org/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000원 / 1년 40,000원
●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결신문사)

총회꽃배달 서비스

김윤희 플라워

화분 / 동서양난 / 꽃바구니

축하화환

축하자리를 더욱 빛내드립니다!

근조화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윤희플라워

NAVER 김윤희 플라워

070-7809-1515

대표 정인구 집사 010-8628-9003

세미나특징

-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증인회)와 3년 3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의 실제 이야기
- 이단의 계보를 통한 시대적 특징과 발생원인 분석
- 이단의 빠지는 이유와 문제점 파악
- 성경해석의 바른 이해
- 주요 이단들의 주장과 특징
- 이단 예방과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비단,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정장면 박사의 심층적이고 세밀한 이단 강의를 통해 그 실체가 파헤쳐진다.

(현,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이단과타종교」 강의)

세미나 신청 & 문의

010.8200.2693

모든 공 예배시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 입니다